

근대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esthetic Cognition of Space in Modern Architecture

이용재* / Lee, Yong-Jae
 윤도근** / Yoon, Do-Keun

Abstract

In early 20th century, a tendency of composite art - the aesthetican historians' struggle to unify various genres including paintings with architecture - appered, which was created on the basis of spacial thoughts. On aesthetic interpretation of arts, the object of aesthetic cognition is formed not just by itself, but by aesthetic consciousness systems, and this means the object can be classified with basic type that has various figures within its aesthetic categories.

Here this study is purposed to prescribe space as an object of aesthetic cognition and define its conceptional characteristics, stylistic expressions, then to play a role as basic study of aesthetics of architectural space forming aesthetic cognition and analysis of architecture.

키워드 : 건축공간, 미학적 인식, 철학적 과학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건축을 형태와 공간으로 구분한다면 외적표현인 형태가 시각적인 조형성으로 인해 그 건축적 인식도가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형태는 결국 공간이라는 내적표현과 연관된다는 것이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며, 이에 따라 공간에 대한 건축적 의미는 변화게 된다.

건축에서 공간은 고대이래로 건축의 본질이 되어왔고, 그 표현의 문제로서 공간개념이 대두되었다. 특히 근대건축 초기에는 많은 미학사가들이 공간개념을 본질로하여 회화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분야를 건축과 통합하려는 종합예술적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공간개념이 예술적인 인식 개념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가능하였고, 더욱이 미나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인간의 정신적 태도라는 추상적 개념을 갖는 미학의 관점으로 인해 공간개념에 대한 인식은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미학의 공통적인 사고의 순서, 즉 논리를 통한 철학적 과학개념을 갖는 공간미학의 발전과 새로운 개념의 형성은 건축공간에 대해서 미학적인 인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에 있어 공간을 미학적 인식의 대상으로 정의하여 그 인식개념과 건축적 표현을 규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이에 따라 건축의 미와 예술성에 대한 공통의 언어를 찾아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과 적용을 가능케하는 건축공간미학의 기초적 연구로서 작용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축을 포함한 예술의 미학적 해석에 있어서 미적 인식의 대상은 그 자체에 의해서 보다는 미의식 체계에 의해서 성립되며, 그 미적 범주에 따라 다양한 미학적 개념과 표현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합예술적 개념을 가지는 건축공간의 인식은 그 미학적 정의와 범주에 따라 변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형성 발전된 근대건축으로 정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미학적 정의를 통해서 공간개념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본 후, 회화를 중심으로 한 예술공간의 미학적 인식에 대한 개념을 철학적 과학개념으로 접근하여 도출한다. 그리고 당시의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인식의 변화과정을 통한 종합적 의미의 건축공간에 대한 미학적 인식개념과 표현을 규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미학의 정의와 전개양상을, 3장에서는 철학과 과학개념으로서 정의되는 공간미학의 형성과 변천을 살펴본다.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명예회장,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그리고 4장에서는 공간미학의 새로운 개념에 따른 미학적 인식개념을 3가지의 나누어 정의하고 이에 대한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과 표현을 살펴보는 순서상의 목차를 취한다.

2. 미학의 정의와 전개양상

2.1. 미학의 개념

미학(美學, aesthetics)이라는 용어는 바움가르텐(Baumgarten)이 자신의 저서 『미학』(1750)에서 ‘감성적 인식의 학(scientia cognitionis sensitivae)’이라는 의미로 ‘aesthetica’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며, 그리스어 ‘aisthêtikos’에 어원을 둔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한 이론적 연구¹⁾를 의미한다. 미학은 인간의 미적 태도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연구하여 세계의 미적 본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미적 파악으로서의 예술이 내포하는 발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본질과 법칙을 명확히 밝히는 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미나 예술에 대한 이론적 반성이라는 의미의 미학은 그 美的 對象에 있어서 단지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美意識을 相關者로 해서 성립되는 것이다.²⁾ 실재적 현상 또는 예술작품의 제작, 감상으로부터 일어나는 美的 感情과 함께 현실의 이데올로기적 감정이 모두 수용됨으로써 인간의 예술적인 태도가 형성되며, 이에 따라 미의식은 인간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실제와 예술창작 양쪽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또한 美的 範疇에 있어서도 이상적인 미의 해석에 대해 우미와 숭고가 각기 대립적인 개념으로 작용하여, 각 시대나 민족적 차이에 따라서 미의식 내지는 예술적 입장에서의 역사적 가치 기준또한 변화되어 나간다. 그러나 이들의 美的 基本形態 또는 미적 범주는 그 다양한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정신적 가치 내용으로서의 공통적인 성격과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공통성과 특수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바로 미학의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미학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성립하는 哲學的 科學으로, 사회적 존재나 인간생활에 대하여 미적 의식 및 예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술의 기원과 본질, 예술적 창조 과정, 그리고 이로부터 형성된 다양한 영역을 사회적 의식 형태와의 관계나 역사적 법칙, 예술적 형태의 특수성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

2.2. 미학의 형성과 전개양상

미나 예술에 대한 이론적 반성 그 자체는 고대 그리이스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일반적으로는 미학의 시조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보고 있지만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이 탄생한 것은 1750년 바움가르텐에 의해서였다. 이후 미학은 칸트의 비관주의적 입장에 의해 보다 명확한 기초를 갖추게 되고, 헤겔은 社會史學과 연결한 ‘美學史家(aesthetician-historian)’라는 독특한 명칭을 만들었다. 이후 하르트만에 이르기까지 독일 관념론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헤르바르트의 실존론적 미학, 영국 흄버크의 경험주의적 미학, 프랑스 디드로의 계몽주의적 미학이 각기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주장을 펼쳤다.

19세기에는 경험과학의 발달로 독일의 페히너에 의해서 전통적인 관념론적 미학의 주관적 사고보다는 객관적 기록에 의한 미적 현상이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위로부터의 미학(Ästhetik von Oben)’이라는 哲學的 방법론과 새로운 ‘아래로부터의 미학(Ästhetik von Unten)’이라는 科學的 방법론 간의 대립이 생기기도 했다. 러시아에서는 벨린스키, 헤르첸 등에 의해 사회적 연관성을 갖는 투쟁적 미학이나 마르크스주의적 미학에 따라 예술을 포함한 현실에 대한 인간의 미적 태도를 일반적 원리로 연구하였다.

이에 비해, 현대미학은 다양한 분야로의 전개양상을 각기 과학적 미학, 철학적 미학, 예술과학, 그리고 예술철학으로 개괄한다. 과학적 미학은 미적 사실을 심리학적, 생물학적, 또는 사회학적 입장에서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미적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본질성과 법칙성에 대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미적인 것의 궁극 원리를 해석하려는 철학적 미학이 대두되었다. 특히 현대의 철학적 미학은 과거의 관념론적 미학과는 달리 그 방법도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철학과 과학을 조화, 종합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학의 형성과 그 전개양상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본다면 미학은 미와 예술의 본질을 ‘철학적 과학’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간미학의 형성과 변천

고대 그리이스 이래로 미와 예술에 대한 이론적 반성, 즉 미학은 一般哲學과 自然科學을 바탕으로 형성 발전하였으며 그 중심개념은 空間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까지는 공간개념이 추상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예술적 개념으로서 보다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서 인식되었다. 공간개념이 藝術的 概念으로 인식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시작되었다.

3.1. 철학적 과학개념의 공간인식

(1) 철학의 영향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들은 공간을 反省의 대상으로 삼았다. B.C. 5세기경 Parmenides는 공간이 그 자체로는 實在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입장을 대표하였으나, B.C. 400년경 Leucippos는 공간이

1) Clément, Élisabeth 외 3인,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à Z*, 철학사전-인물들과 개념들, 이정우 역, 초판, 동녘, 서울, 1996, p.117

2) 근대의 미학사에 있어서 미적 대상에 대한 분류 양상은 K.피들러, J.헤르바르트, R.집머만, A.차이징 등으로 대표되는 형식적 측면을 고찰하는 ‘형식미학’과 헤겔, 셸링, G.집멜, T.립스 등으로 대표되는 내용적 측면을 고찰하는 ‘내용미학’으로 나뉜다. 이에 비해, 현대의 미학사에 있어서는 N.하르트만이나 E.수리오 등과 같이 미적 대상을 존재양식, 작품구조의 측면에서 현상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고찰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3) 월간미술 編, *세계미술용어사전*, 6판, 중앙일보사, 서울, 1996, pp.150-155

실체적 존재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했다.⁴⁾ 플라톤(Plato)은 『Timaeus』에서 공간을 유한한 우주의 제한된 요소들이 수학적인 비례로 결합된 기하학적 입체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공간을 물체의 경계를 갖는 유한한 우주의 장소(topos)이론으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물체와 공간을 동일한 것으로 다루었던 플라톤의 構築法的(tectonic) 개념에 반대되는 것으로, 장소는 형태나 재료도 없는 물체의 용기로 해석된다.

16세기 중반 지동설을 통해 과학적으로 공간의 무한성이 밝혀지면서 철학적 이론에는 하나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데카르트의 직관적 통찰이나 로크의 지각적 경험⁵⁾을 통한 공간개념이 하나의 미학적 현상으로 발전되어 20세기 초반의 예술가들이 이전에는 다만 지각이나 지적으로만 이해되던 공간개념을 의식적인 예술표현의 주제로 다루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칸트는 오직 순수이성에 근거한 선형적인 직관(intuition)을 통해서 공간에 무한한 성격을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공간개념은 뉴턴의 절대적 공간개념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헤겔(Hegel)은 이념의 감각적 표현을 예술이라고 정의하면서 내용의 표현으로인 형태의 판단에 의해 지배되는 미학이론이라는 측면에서 '정신(spirit)'의 표현을 상위단계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헤겔의 미학이 정신의 집중체인 공간에 그 의미를 부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과학의 영향

기하학적 비례를 갖는 입체구조라는 플라톤의 수학적 공간개념 이후, 17세기의 과학적 혁신에 따라 물리학적 공간에 대한 양상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친다.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친 미학적 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自然科學의 영향이었다.⁶⁾ 뉴턴(I. Newton)은 이원론적인 물리적 공간개념에 따라 균질하고 무한하며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absolute)공간과 그 공간을 측정하는 좌표계로 표현하는 상대적(relative)공간으로 분류하였다. 뉴턴은 이 두 공간 중에서 정적이며 3차원적인 절대적 공간에 우위를 두었으며, 이에 따라 고전 물리학의 기초적 정립과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공간개념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물리적 공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생각은 19세기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성립과 상대성이론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다. 패러데이(Faraday)와 맥스웰(J. C. Maxwell)에 의한 전자기

학 분야의 발견이나 리이만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수립과 같은 과학사상의 변화에 의해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공간개념에 근본적 변화를 준 것이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상대적 공간개념으로서, 1905년과 1916년 아인슈타인(A. Einstein)의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라는 상대성 이론에 근거를 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의 한가지 차원과 공간의 세가지 차원을 갖는 4차원의 장(field)으로 공간개념을 상대적으로 인식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을 포함한 예술분야의 공간미학은 다소 철학적 공간개념을 초월한 표현이므로, 공간개념의 인식을 철학적 과학개념에서 해석함이 명확할 것이다.

3.2. 공간개념의 미학적 변천

(1) 새로운 공간개념의 도입

19세기는 공간개념이 의식적으로 예술분야의 표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로, 1802-5년 『예술철학』을 발표한 셸링(F. W. J. Schelling)이나 1815년 『에르빈 Erwin』의 졸거(K. W. F. Solger), 그리고 1855년 『치체로네 Der Cicerone』를 발표한 부르크하르트(J. Burckhardt)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부르크하르트는 '공간미'라는 이념을 형식미, 장식미, 구조미보다 최상위 개념으로 표현하므로써 새로운 공간개념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개념들은 당시의 철학적, 과학적, 그리고 미학적 변화에 따라 발생된 임의적인 절충주의의 양식적 혼란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그것은 미적체계에 대한 공간개념을 직관적으로만 평가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혼란을 해결한 것은 예술현상에 따른 과학적 법칙성을 연구한 쟈퍼의 실천적 미학이었다. 실천적 미학은 예술상징(Kunstsymbol)의 개념으로서 목적, 재료, 구조의 3가지 유물론적 기능에 따르는 '의미있는 형태', 즉 대칭, 비례, 방향을 띤 3차원적 새로운 공간개념이었다.

공간의 본질이 3차원 환경에 대한 감정의 주입과정으로 정의한 비셔(F. T. Visher)의 감정이입 개념이 1873년 도입된 이후, 립스(T. Lipps)는 대상과 관찰자 간의 공명(resonance)을 통한 추상적 도식으로 미학적 공간론을 제안했다. 미학적 공간은 생생하게 형성된 공간으로 '공간혼'에 의해서 전개되는 심적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창조적 활동이 관찰자에게 달려 있다는 감정이입의 개념은 대상물을 심미적 관찰에 의한 외부형태의 추상적 공간구조로만 해석하였다.

헤겔 미학의 논리적인 진보인 쟈퍼의 유물론적 실천미학으로부터 시작된 공간개념은 1893년 美學的 概念으로서 空間概念을 주장한 힐데브란트(A. Hilderbrand)와 슈말소(A. Schamlsow) 이후, 1901년 리글(A. Riegl)의 예술의지(Kunstwollen)이론에 의해 공간개념이 과거의 모든 역사시대에 통용되는 예술적 개념으로서 본격화 되었다.⁷⁾

(2) 공간미학의 형성과 발전

힐데브란트는 1893년 『조형예술에 있어서의 형식의 문제』에서 진

7) Van de Ven, Cornelis, Op. Cit., p.10

4) Norberg-Schulz, Christia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4판, 태림문화사, 서울, 1994, p.9

5) 데카르트가 확장의 개념을 물질세계에만 적용한 반면, 존 로크는 정신세계에도 적용시켰다. 그는 확장이 물질의 현저한 속성이 아니라, 정신과 물질 양쪽에 둘다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각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선형적인 지식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메를로 폰티(Merleau Ponty)와 하이데거(Heidegger)와 같은 현대 현상학자의 전조로 볼 수 있다. Van de Ven, Cornelis, Space in Architecture, 건축공간론, 정진원, 고성룡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88, pp.46-50

6) 井上 充夫, 建築美論, 건축미론, 임영배, 신태양 역, 초판, 도서출판국제, 1994, p.158

정한 예술작품은 공간표출로서의 형태와 기능표출로서의 형태, 즉 '공간가치'와 '기능가치'를 동시에 조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공간을 미적체계에 따른 형태표현의 가치로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공간 개념을 인식하는 시각방법으로서의 그 이미지 형성의 결과에 따라 순수시각과 동적시각 개념으로 분류했다. 순수시각은 원거리 상의 이미지를 통해 관찰자에게 하나의 통일된 평면상인 2차원을 제공한 것이고, 동적시각은 이동시각을 통해서 일련의 연속적 이미지를 통해 조형적 개념 또는 3차원적인 인상을 받는 것이다. 그의 동적시각 개념은 공간이 모든 예술작품의 기본임을 강조한 것과 더불어 전체 시각 이미지의 형성과정에 시간이란 요소를 도입시켰기 때문에, 19세기 공간개념에 가장 현저한 공헌을 끼쳤다.

쉬말소는 공간을 시각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종래의 예술론을 비판하면서 신체감정 혹은 촉각의 작용이라는 측면으로 시각되는 실존적 공간을 3분류하였다. 그것은 촉각적 공간(tastraum-感覺的), 운동적 공간(gehraum-繼時的), 그리고 시각적 공간(schraum-同時的)으로서⁸⁾,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동시에 발생하기 쉽고, 연속적으로 경험하기 쉬운 인간의 모든 감각을 통합시켰다. 그의 공간개념이 역사적 양식의 중대한 요인이라는 확신을 표명한 후에 많은 예술사자들은 공간개념을 주요 기준으로 과거를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이후 공간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은 예술의지 개념을 도입한 리글로, 그의 개념은 자체로서 존재하는 최고의 선험적 조건으로 모든 예술의지의 원천이 공간개념에 있다는 것이었다. 촉각에 의한 근거리 시각(tactile-close vision)과 시각에 의한 원거리 시각(optical-distant vision)으로 분류하여 평면을 입체적인 공간으로 해석하는 예술적 진보를 표현했다. 특히 깊이에 대해 구조면을 시각적으로 중복시키는 효과는 입체파 및 신조형주의의 전조가 되었다.

공간과 매스의 상호관입을 통한 미학적 결합이라는 대립개념에 관심을 둔 브링크만(A. E. Brinckmann)이나 쇠르젤(H. Sörgel)의 효과적 공간은 감각예술의 본질로서 건축적 공간을 부각시켰다. 즉, 2차원적 이미지의 평면예술인 회화, 3차원적 블록매스의 물질예술인 조각, 3차원적 오목공간의 공간예술인 건축으로 분류하였다.

프랑클(P. Frankl)은 빌플린의 의인론적 감정이입론과 쉬말소의 공간이론 모두를 취합하여 공간형식, 실체형식, 시각상형식, 목적지향이라는 4 가지의 미학적 비평체계를 갖추었다.⁹⁾ 특히, 視覺像形式은 빛·색 혹은 觀向(ansicht)의 특성을 가진 상의 단일성과 다수성과 같은 시각적 대립개념으로 역사적 공간을 해석하고 있다. 시각상형식은 힐데브란트의 동적시각 이론을 응용한 것으로, 예술에 대한 그의 미학적 시각이 관향의 무한성에 따른 변화하는 다수의 이미지 형성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3) 공간미학의 전환

공간은 시간과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시공 연속체 개념이 미코프스키에 의해 최초로 등장하고, 상대성 이론에 따른 미

학분야의 파급효과는 적지 않았다.¹⁰⁾

주커(P. Zucker)는 시간과 공간개념의 결합을 건축적으로 명백히 한 최초의 건축이론가이다. 입체파와 미래파에 의한 근대운동의 새로운 발견인 시공간 개념은 1921년 주커의 연속성(continuity)의 관점으로 이전의 공간개념보다 건축의 본질을 더욱 잘 나타낸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쉬말소의 공간개념, 빌플린의 매스개념, 브링크만의 공간과 매스결합개념 모두 건축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에 공간에서의 시간개념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증을 통해 공간에 대한 미학적 개념이 시공간 연속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기디온(S. Giedion)은 근대건축이 다른 시대와 구별되는 가장 현저한 조형적 특색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건축의 상호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적 의미의 공간 본질은 그 다면성, 즉 내부관계로의 무한한 가능성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의 장소를 모두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3차원 공간에 제 4의 차원, 즉 시간의 차원이 부가되어, 시공간개념이 상호관입한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표현이 새로운 미학적 개념임을 주장하였다.¹¹⁾

4.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

4.1.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개념

공간의 미학적 인식이라는 정의에 대한 연구는 1893년 힐데브란트에 의해 시작된 이래 4차원적 의미의 시공간 연속체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미학적 인식은 변화 발전하였다. 그리고 철학적, 과학적, 사회적, 기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회화를 포함하는 예술공간을 정의함에 있어서 3차원성의 뉴턴적인 절대공간보다는 4차원성의 아인슈타인적인 상대공간이 그 정점의 우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간인식의 변화과정을 통해 예술의 종합적 경향으로 정의되는 건축의 공간미학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2차원 평면예술인 회화의 미학적 인식을 개념화하여 살펴봄으로써, 4차원 공간예술인 건축으로의 기초적 적용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1) 연속적 시각

시각 심리학을 바탕으로 공간 속에서 연속적 이동을 통해 공간개념과 공간형태를 미학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의미한다. 이것은 힐데브란트의 동적시각 개념에 그 근거를 두어 일련의 연속된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공간의 4차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입체파나 미래파에서 그 표현적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발라(G. Balla)의 <가죽끈에 끌려가는 강아지의 다이나미즘

10) 1776년 레싱(G. Lessing)에 의해 예술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양극적 카테고리 분류한 이래, 양자간의 관계는 상대적 개념에서 있는 현대에 이르러 베르톨라(E. de Bertola)와 같은 현대 미학자들의 주장에서처럼 모든 예술 간에는 시간과 공간의 연계성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이대암, 시간예술로서의 건축, 건축, 통권 196호, 1995.9, p.46

11)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공간시간건축 2, 최창규 역, 중판, 산업도서출판공사, 서울, 1990, pp.2-24

8) 井上充夫, Op. Cit., p.281

9) Ibid., pp.253-255

(Leash in Motion), 1912>은 대상이 연속적으로 운동하는 이미지를 상호침투하여 공간의 역동성을 특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움직임이라는 '時間的 連續性'을 통해 空間에서 환경이나 대상, 관찰자와 같은 변화인자에 따라 연속적인 관계를 갖는 지각적 형태를 유도하였다.

이 개념은 반 도스부르크의 시공간 원리나 모홀리 나기의 운동시각이 되었던 동적시각(kinetic vision)이라는 명제로 발전되며, 건축 공간에서는 非求心的 構成, 즉 시각의 이동에 따른 공간의 流動的 표현원리가 된다.



<그림 1> 빌라, Leash in Motion, 1912

(2) 다중적 시점

공간의 미학적 인식개념의 다른 하나로는 다수 시점들이 2차원의 한 평면위에서 4차원의 시간을 통해 미학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다중적 시점을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공간상의 시각적 인상을 논리적인 방법보다는 마음 속에 형성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예술적 관념을 이룸을 의미한다. 단일 시점의 전통적인 투시도법적 화풍은 하나의 불완전하고 순간적인 단편만을 만들어 내는 한계로 인해 다수의 시점을 가진 이미지들의 중첩을 통해 4차원의 동시적 표현을 한다.

입체파 작가인 피카소(P. Picasso)의 <Ma Jolie, 1911>를 미학적 인식개념에서 살펴보면 관찰자의 위치가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가 되는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다수 시점이 동시적으로 상호 중첩되어서, 결과적으로 '時間的 同時性'을 통해 空間에서 시점의 다중성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건축공간에서 입체적인 안길이가 소멸되어 공간의 媒介가 상실된 투영되고 중첩된 表層性을 그 표현원리로 갖게 되며, 이후 아르누보 건축가에 의해 최초로 건축공간에 流動的으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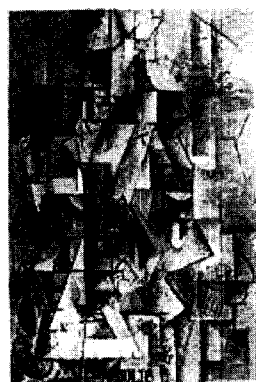
(3) 지각적 형태

연속적 시각과 다중적 시점을 공간 내에서 인식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다른 하나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간에서 시각과 시점을 통해 복합적으로 지각되는 매스에 대한 미학적 결합을 의미한다. 즉, 공간과 매스의 관계는, 공간 속의 조각적 매스나 매스에 둘러싸인 공간에 비해 대립적인 두 개념이 상호관입함으로써 지각적으로 명확하게 공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매스와 공간의 양면을 모두 지각하려는 프랑클의 동시성과 다수 이미지 개념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단일 이미지 시점을 해체하여

공간을 동시적으로 시각화한 입체파의 종합적 지각 표현¹²⁾을 중심으로하며, 특히 뒤상(M. Duchamp)의 <계단을 내려가는 나무, 1913>는 이러한 미학적 결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과 매스의 미학적 결합을 통한 공간의 지각적 형태는 궁극적으로 건축에 적용하는 미학적 수단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構築的(tectonic) 예술인 건축이 공간주변의 요소들을 결합하는 특성에 기인하며, 물체와 공간은 동일평면상에서 統合되고 공간은 相對的 개념으로 인식되어 건축공간의 표현원리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2> 피카소, Ma Jolie, 1911



<그림 3> 뒤상, 계단을 내려가는 나무, 1913

4.2.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과 적용

근대화공간상의 미학적 인식개념에 따른 건축적 표현은 공간에 대한 시간적 요소의 도입으로 정의된다. 고전적인 절대공간에서의 가역적 시간개념이 근대적인 상대공간에서는 비가역적 시간개념을 포함한 시공간과 4차원이라는 새로운 공간개념, 즉 시공연속체로 전환된 것이다. 예술은 어떠한 개념을 완전히 표현해야한다는 헤겔의 입장에서 보면 근대건축에서의 완전한 표현은 건축형태에서 보다는 그 내용, 즉 建築空間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서양의 전통적인 이분법의 기초에 의해 예술이 물질의 표현에서부터 정신의 표현, 즉 공간개념의 표현으로 옮겨가는 것을 분석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근대건축공간을 분석함에 있어 회화공간에 대한 미학적 인식개념인 연속적 시각, 다중적 시점, 그리고 지각적 형태를 종합하여 발전시킨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건축을 보는 가장 명백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1) 공간개념의 건축미학적 인식과 분류

건축미학에 있어서의 공간적 효과에 대해서는 원시시대 이래 모든 사람에게 의해 의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공간의 문제가 건축미

12) 큐비즘 회화는 단순히 사물을 보이는 데로 그리기보다는 사물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그리고자 하였다. 그것은 사물의 얼마나 많은 면을 보여준다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림은 아직도 이차원적이고 많은 부분을 상상에 의존하고 있다. 종래의 회화보다는 사물에 대해 훨씬 더 적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에서 볼 때 아돌프 루스의 장식을 배제한 건축이 그 직접적이고 선두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mbert, Rosemary, The Twentieth Century ; Cambridge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Art, 20세기 미술사, 이석우 역, 초판, 열화당, 서울, 1986, pp.19-21

학의 주요 테마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이와 함께 예술분야를 건축과 통합하려는 종합예술적 경향을 보인 예술가들이 모든 시대에 존재하였다. 특히 1890년대 이후 근대건축운동의 절정기인 1920-30년대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공간을 통해서 건축과 회화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19세기 후반 당시 공간개념을 건축미학의 총합체로 제시한 유일한 건축가인 쟈퍼¹³⁾로부터, 동적시각을 통해 건축이 본질적으로 공간을 통한 인간의 운동임을 주장한 힐데브란트나 '건축은 공간구성자(Raumgestalterin)'라고 정의한 쉬말소, 그리고 모든 예술의지의 목적이 공간임을 주장한 리글에 이르기까지 예술에서 건축의 공간성¹⁴⁾을 강조하였다. 이후 브링크만의 공간과 매스의 결합을 통한 미학이나 쇠르젤의 효과적 공간과 공간예술로서의 건축에 대한 정의는 종합예술에서 공간에 대한 건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제 3세대 건축이론가로 근대건축의 공간적 특색을 처음으로 논한 기디온이나 최초로 시공간 연속개념을 건축미학에 표현한 쥬커는 당시의 입체과 회화나 미래파, 데스틸 미학인 시공 연속체개념을 건축공간개념의 본질로 표명하였고, 이는 종합예술(Gesamtkunstwerk)적 개념으로서 건축과 회화를 포함한 예술분야의 상관성을 명확히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건축공간에 대한 인식은 슐츠에 의해 건축적 공간이 인간의 개인적, 공적 세계에 관한 schemata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적 공간이란 실존적 공간을 구체화한 것¹⁵⁾이라는 정의에까지 이르렀다.

근대건축 공간개념의 인식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대체적으로 1860-1900년대는 건축공간론의 발생기, 1900-40년대는 발전기로 보며 그 분류를 인식개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표현

종합예술적 개념의 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은 수학적 질서의 기하학적 조형을 합리화하려는 시도¹⁶⁾를 보인 입체과로부터 기인한다. 대상을 하나의 화면에 공간적으로 구성시켜서 상대적이고 분석적으로 표현하려는 것¹⁷⁾이나 시점을 다양화하여 동시적으로 표현하거나

〈표 1〉 건축공간론 발전기의 공간분류와 인식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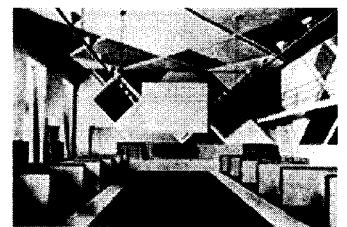
	건축공간	인식개념	미학사
일원론적 공간개념	공간예술로서 건축의 계승	건축만이 공간에 완전한 가치를 부여	G.Scott, 1914
		건축의 주요 조형수단은 공간	L.M-Nagy, 1929
이원론적 공간개념	공간과 형태의 분화, 조화	건축공간개념은 공간과 조소와의 이원적 관계	A.E.Brinckmann, 1922
		공간과 물체는 표일체 의 관계	E.Panofsky
다원론적 공간개념	형태이외의 요소를 공간에 병렬	건축의 4요소를 공간구성 요소로 다각적, 종합적 파악	P.Frankl, 1914
		건축은 물체조형에 의한 2종의 공간조형예술	F.Schumacher
위계적 공간개념	여러요소를 공간의 의미에 따라 위계형성	의미는 제1의 규정적계기 공간은 제2의 의존적계기	E.Cassirer, 1936

2차원적 평면성을 그 공간적 의미로 표현함으로써 4차원적인 건축공간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20세기 초 근대건축운동기의 러스킨(J. Ruskin)은 여러 기술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건축을 종합예술로서 높이 평가했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모리스(W. Morris)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수공예(Arts and Crafts)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아르누보(Art Nouveau)의 공간은 회화에서 연속적 시각의 다중적 시점을 통해서 안길이가 소멸된 공간의 표현을 건축적으로 달성한 최초의 예이다. 표층적이고 자유로운 장식으로 인해 깊이가 없고 그에 따라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되는 매개가 존재하지 않는 동시에 더욱 자유롭게 유동하므로 공간에서의 表層性을 갖는 새로운 미학적 공간원리를 전개시켰다.

미래주의자인 산텔리아(A. Sant'Elia)는 그의 건축공간에 연기와 전선마저도 포함시켜 건축이 연속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공간감을 입증시켰다. 물체와 그 주위를 감싸는 공간을 統合하려는 시도는 하나의 연속된 映像的 認識에 그 근원을 두며, 그러한 連續性은 공간의 상대성 속에서 力動的 形態의 건축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4〉 산텔리아, 발전소, 1914 〈그림 5〉 반 도스부르크, 카페 드 오베트, 1926-28

기하학적 추상예술 그룹인 데 스틸도 모든 조형예술의 협동에 목표를 두고 공간개념을 미학적 원리로 명확히 선언했다. 건축공간을 회화적 평면의 분해와 확장으로 해석하여, 유동적이고도 연속적인 결합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중간공간에는 매개성이 사라졌으며, 안길

13) 당시의 유력한 건축가로는 장식과 구조의 불분적 통일성에 관심을 둔 프랑스의 비올레 르 뉁(Viollet-le-Duc), 건축형태와 자연형태의 생물학적 유사성을 모색했던 영국의 러스킨(J. Ruskin), 그리고 재료의 성질에 따른 새로운 이론창출이라는 유물론적 접근에 주력한 독일의 쟈퍼(G. Semper)가 있었다. 특히 쟈퍼는 당시의 새로운 재료인 철의 위력을 인식한 최초의 건축가 중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Van de Ven, Cornelis, Op. Cit., p.96

14) 이러한 공간개념 경향과 함께 感情移入개념에 의한 形態中心的 傾向이 비셰(F. T. Vischer: 감정이입개념), 볼켈트(Volkelt), 립스(Lipps), 뵐플린(Wölfflin: 매스개념)으로 이어져 형성된다. 이는 매스에 대해 의인론적 상징주의의 객관화로서, 공간에 대해 평면적 2차원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15) Norberg-Schulz, Christian, Op. Cit.,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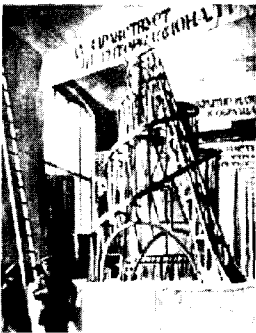
16) 수학과 건축의 미학적 관계는 숫자나 건축부분 간의 관계 파악을 통해 유사한 만족과 사물의 고유질서에 대한 유사한 느낌을 통해 도출된다. 건축적인 조화사이의 유사나 건축의 합리적인 본성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욕구와 반응을 반영하므로 건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cruton, Roger, The Aesthetic Understanding, 미학의 이해, 김경호, 이강호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91, pp.249-250

17) Golding, John, Cubsim, 큐비즘, 황지우 역, 초판, 열화당, 서울, 1988, p.42

이가 상실되는 표현을 했다. 반 도스부르크(T. van Doesbrug)는 볼륨을 자유로운 슬라브로 해체한 다음 투시화법적 시각을 피해 재조합함으로써 건축에 시간과 공간의 4차원적 개념을 실현시켰다.¹⁸⁾ 또한 공간적 경험의 총체적 표현으로 비대칭적 사선과 평평한 색면을 連續적으로 상호작용시켜 시공간 연속체를 보여주었다.

러시아 절대주의는 회화, 조각, 건축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없었다. 말레비치(K. Malevich) 회화의 3차원적인 표현을 통해 예술의 종합적 성격을 보여주었고, 구성주의자 타틀린(V. Tatlin)의 시간과 공간의 조형적 표현¹⁹⁾이나 멜리니코프(K. Melnikov)의 구성적인 비합理的 空間과 함께 리시츠키는 지각적인 관점에 따라 2, 3, 또는 4차원적인 공간의 이미지로 공간을 분류하여 20세기의 공간개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바우하우스를 설립한 그로피우스(W. Gropius)는 그 궁극적 목적이 통일예술, 즉 건축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공간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의 시공간을 물리적인 공간 속의 운동 또는 운동 속의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重疊을 통한 재료의 透明性和 浮游하는 공간의 연속체로서 물체와 공간을 통합하려는 공간의 상대성을 인식키위한 건축적 표현이다.



〈그림 6〉 타틀린, 제3국제기념탑, 1920 〈그림 7〉 그로피우스, 뉘른베르크 바우하우스, 1926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미학적 인식의 대상으로 정의된 건축공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미학의 형성과 전개양상에 따라 미학은 미와 예술의 본질을 철학적 과학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철학적 과학 개념을 바탕으로 한 조형예술의 미학적 본질적 분야는 공간이고, 공간은 예술의 종합적 경향으로 정의되는 건축의 미학적 근원으로 작용한다.

둘째, 공간미학의 새로운 개념인 시공간 연속체는 3차원적 공간에 시간을 부가한 개념으로, 이 개념으로 인해 상호관입적인 표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서 건축을 포함한 예술분야의 미학적 인식에

상관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셋째, 공간의 미학적 인식개념은 연속적 시각과 다중적 시점, 그리고 지각적 형태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건축공간의 표현원리로 비구심적 구성과 표층적 비매개성, 그리고 상대적 통합성을 든다.

넷째, 미학적 인식으로서의 건축공간개념은 일원론적 공간개념과 이원론적 공간개념, 다원론적 공간개념 그리고 위계적 공간개념으로 분류되며,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표현으로는 역동과 동시, 투명, 중첩 등이 있다. 이에 따라서 근대건축공간의 미학적 인식은 공간의 영상적 인식의 전개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3rd ed., Thames & Hudson, London, 1992
2. Clément, Elisabeth 외 3인,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à Z*, 철학사전-인물들과 개념들, 이정우 역, 초판, 동녘, 서울, 1996
3.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공간시간건축 2, 최창규 역, 중판, 산업도서출판공사, 서울, 1990
4. Golding, John, *Cubism*, 큐비즘, 황지우 역, 초판, 열화당, 서울, 1988
5. Joedicke, Jürgen, *Space and Form in Architecture*, 건축의 공간과 형태, 윤재희, 지연순 역, 초판, 세진사, 서울, 1995
6. Lambert, Rosemary, *The Twentieth Century ; Cambridge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Art*, 20세기 미술사, 이석우 역, 초판, 열화당, 서울, 1986
7. Norberg-schulz, Christian,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4판, 태림문화사, 서울, 1994
8. Scruton, Roger, *The Aesthetic Understanding*, 미학의 이해, 김경호, 이강호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91
9. Van de Ven, Cornelis, *Space in Architecture*, 건축공간론, 정진원, 고성룡 역, 초판, 기문당, 서울, 1988
10. Zevi, Bruno,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건축의 현대언어, 이해성 역, 1판, 세진사, 서울, 1992
11. 井上充夫, 建築美論, 건축미론, 임영배, 신태양 역, 초판, 도서출판국제, 1994
12. 김태국, 건축공간의 창조와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1
13. 최근원, 건축공간론의 발생과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2
14. 이대암, 시간예술로서의 건축, 건축, 통권 196호, 1995.9
15. 이용재, 윤도근, 미의식 체계 변화에 따른 건축의 기제미 표현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109호, 1997.11

〈집수 : 1998. 2. 16〉

18) Zevi, Bruno, *The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건축의 현대언어, 이해성 역, 1판, 세진사, 서울, 1992, pp.37-39, pp.188-190

19) Frampton, Kenneth, *Modern Architecture ; a critical history*, 3rd ed., Thames & Hudson, London, 1992, p.170